Priere pour Mali

Adress : M. Jung In Kwun
B.P E4160 Bamako Mali
West Africa
TEL (223)9215-4340
E-mail : jiktlc@hanmail.net
한국 우리은행
19507028378 류관숙
말리 어린이 후원 -우리은행-
1002-340-728055 정인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마 14:15-21)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달부터 간간히 내리던 비는 폭우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주는 계절의 변화가, 말리의 풍경과 흐름을 알려주는 시계의 추와 같은 것 같습니다. 건기만 되면 그 뜨거움이 평생 갈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 또한 비가 내리면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나라에 주는 작은 기쁨이요 또 한 해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리 소식을 올려 드립니다.

말리…

최근 말리는 테러로 인하여 많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도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지하디스트들이 민간인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하여 132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등 매우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얼마전까지 말리 북부의 치안을 감당했던 프랑스 군은 와전 철수를 하였고, 프랑스 군을 대신하여 러시아 군이-규모는 적지만- 말리 북부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인지 불안함이 있는 것은 말리에 사는 외국인이라면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의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이곳 말리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현지 교사들의 월급인데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점점 어려워 하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마치 제가 잘못해서 교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함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해 줄 수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가 더 걱정인 것은 원조를 받아야 하는 말리가 도움의 길들이 거의 다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제재 그리고 가난함이 이곳 말리를 더욱 황폐하게 하지 말아야 할텐데요...

이곳 말리는 비가 내릴때에 바람이 정말 세게 불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와 동역을 하는 코랄레 교회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전날 불은 강풍으로 인하여 교회 지붕이 날라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이었지만 재정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 작은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코랄레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속히 복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복음학교...

말리의 학기는 2년만에 정상적인 학기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리 복음학교도 정상적인 학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하는 6학년의 경우 작년부터 Issaca 선생님이 작은 파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참석하는 아이들이 파티를 위한 비용을 조금씩 지불을 하고 학교와 제가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서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파티에 대한 도움 요청을 해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약간의 코멘트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기말에는 말리 기독교 학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선한 사마리아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선물은 보통 성탄절 시기에 진행을 하지만 저희는 학기말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물포장도 그리고 내용물도 아이들에게 큰 호기심을 가져다 충분하기에 아이들이 큰 호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새학기에는 이곳 파소카누 지역이 아닌 세누 지역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새로운 사역을 위한 작은 아픔과 이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누 지역의 사람들도 – 벌써 저희 사역(교회, 학교, NGO 사역)을 듣고 기대하는분들이 있어서 마무리와 open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분주 하지만 아직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에 마음 한 구석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년전부터 학교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학을 해야 하는 친구들의 서류 준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0월말에 지금 랜트하고

있는 파소카누 복음학교와 교회를 빼겠다고 연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저희 숙소와 학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10월 말에는 공사중인 – 스탶들의 숙소는 거의 마무리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한 전기가 지역 공급의 문제로 언제 설치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결단해야 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복음센터 건축

지난 달에 이어서 건축은 더디지만 조금씩 더디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면서 물가 인상의 어려움은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물가 인상, 쿠테타로 인한 불안한 물가 인상, 전쟁으로 인한 물가 인상 등등 이러한 이류로 복음센터가 건축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재정의 40% 이상의 재정이 더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어서 쉽게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10월에는 학교를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도 open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되어 있지 않은 현지 학교를 보면서 저렇게 수업하는 것에 가슴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에 저희도 이제 똑같이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닥도, 벽도, 조명도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9월까지 진행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사 숙소는 내부 공사를 진행학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붙박이 장을 설치하고 씽크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가격을 보면 한국에서 보다 설치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은데 결과물은 재료 때문인지 – 개인적으로 만족은 하지만 –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교사들 가족이 불편하지 않게 설치를 하고 다음주에는 2가족이 먼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기가 없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최근에 골조 공사를 마치고 일부 미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비가 오기전에 교회 본당 지붕을 설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붕 설치 사전 작업을 모두 마쳤지만 아쉽게도 지붕 설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이라 비가 내리고,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진행을 하였지만 지붕을 덮을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멈출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일정과 무리한 재정이었습니다. 조금 더 멈추고 진행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 물론 확신이라고 했지만 저의 교만과 저의 잘못된 믿음 그리고 저의 욕심이 많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을 가지고 재정을 사용하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되었고 지붕도 덮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의 욕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10월말에 저의 숙소와 학교 교회가 모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건축이 모두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옮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전기 문제입니다.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전기 시설로 인하여 우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센터에 최소 40kw-50kw가 필요합니다. 설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기 설치가 빨리 진행이 되게 되면 약 18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재정의 손실이 없게 전기 시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 주세요.

기도제목

- 복음학교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도록.
- 복음학교 교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 복음센터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 자녀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이 순조롭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정인권 선교사(비후성심근증)의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2022년 6월 말리에서 정인권 선교사 올림